

사회

내년에도 800명 감축 전남 최악 '교사 대란'

농어촌 교육 황폐화... 정치적 대책 수립 시급

교사 정원을 학생 수에만 맞춰 정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전남 교사 수가 약 800명 줄어 든데 이어 내년에도 800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전남 '교사 대란'이 최악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전남의 교사대란은 귀농·출산 장려정책으로 겨우 활력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 농어촌을 다시 황폐화하는 주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을 넘어선 정치적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22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 학부의 교사 정원 기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원 769명이 줄어드는 데 이어 내년에는 전남교원 정원이 783명 줄게 된다. 2년간 도합 1552명이 감축되는 규모로, 이는 전남의 전체 교원이 1만2666명의 12%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 교사 1인당 학생수 외에 학급수를 반영해 왔던 교원정원 배정기준을 폐지하고, 교사 1

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전국을 4개군(群)으로 구분해 교원 정원을 배정하고 있다.

1군(교사 1인당 학생수 20.97명)은 경기, 2군(20.80명)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3군(18.98명)은 충북·경남·제주·충남, 4군(16.90명)은 전남·강원·전북·경북 등이 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지역실정을 감안해 4군 이외에 '제5군(도시벽지군)'을 별도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완강한 입장이다.

실사 이같은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전남은 내년에만 초등 283명, 중등 189명 등 모두 472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가뜰이나 열악한 전남교육의 황폐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원 감축은 학급수 감축과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교사의 수업시간 부담 가중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전공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삼치 교사, 순회·겸임 교사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른다.

더욱이 이같은 여건에 따라 신규 교사 임용 등도 대폭 줄일 수밖에 없게 돼 교단 노령화 등 악순환이 우려되며, 전남의 농촌인구 외유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쟁력 저하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와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도 전남도교육청과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당선자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과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거쳤을 텐데, 어떻게 이같은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남과 비슷한 유형의 강원 지역 교육감 등과 연대를 대응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시설에 친환경쌀

22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청사앞 광장에서 해남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모듈 생산업체인 (주)SDN(대표 최기혁)이 기증한 20kg짜리 친환경쌀 300포대를 저소득 세대에게 전달기 위해 옮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시 경관조명 역대 뇌물 시의원 10여명에 유입 확인

'여수시 야간경관조명 사업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여수시 전 국장급 간부 김모(여·59)씨가 업자로부터 받은 '뒷돈' 가운데 일부가 여수시의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수경찰은 22일 전남도의원 당선자인 A씨가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습득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500만원의 돈봉투는 구속된 김씨가 수뢰한 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돈봉투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시의원 신분 이던 지난해 12월 오후 1시 30분경 A씨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 시장의 연부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주씨는 구속된 김씨가 경관조명 업체인 나이토포아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건네 주자 A씨 등 당시 여수시의원 10여명에게 500만~1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3일에는 시의원 1, 2명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오 시장은 수사방이 좁혀오자 지난 21일 연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나원침 (8054) 김장동



함평군 도의원 당선자 구속

함평경찰은 22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함평군 도의원 당선자 박모(4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께 유권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주민 수십명에게 현금 1630만원과 140만원 상당의 사과 등 모두 1770만원 가량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화기자 hwang@

단전에 수족관 활어 등 피해

광산구 월계동 상가 상인들 한전 조치 반발

광주의 한 상가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한전의 단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모 상가 건물 세입자들에 따르면 한국전력 광주 광산지점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이 건물에 단전을 실시했다. 이날 단전은 건물주의 전기료 체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상인들은 이날 한전의 단전으로 노래방과 식당, 횡집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활어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단전 때문에 수족관에 보관중인 활어와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가 상해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건물은 현재 10여개의 상가가 입주해 있으며 계랑기가 상가별로 설치돼 있지 않아 한전은 약관

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2000만원 가량 체납된 전기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8년 이후 경매를 통해 최근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단전에 대해 한전 측은 사전 공문을 발송하고 상인들을 찾아가 개별안내를 하는 등 총 23차례 이상 단전예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전기료 체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건물 소유주에게 이미 체납요금 납부와 보증을 요구했지만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단전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차례나 자가 발전기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업주가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프로야구 삼성 선수 일간 나이트서 여성 지갑 훔쳐

현역 프로야구선수가 나이트클럽에서 합성한 여성의 지갑을 훔쳐 경찰에 불발했다.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A(23)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장모(여·33·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의 현금 34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동료선수 한 명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찾다가 장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장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의자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지갑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무섭다!” 10대들

광주

화장실서 초등생 성추행

광주서부경찰은 22일 놀이터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 한모(18)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발로 조사중이다.

한군은 지난 21일 오후 7시15분부터 2시간 가량 광주시 서구 염주동 한 놀이터 공용화장실에서 초등학생 4학년 A(10)군의 상기를 만진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군은 또 나무 막대기로 A군의 엉덩이를 8회 가량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모 병원 매점에서 일하는 한군은 약취유인 전과 4범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

서울

친구살해 시신 훼손 한강에

서울 마포경찰은 살인·폭행치사·시신유기 혐의로 정모(15)군과 최모(15)양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모(19)군과 윤모(15)양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군 등 6명은 지난 9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김모(15)양을 가위놓고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담요에 싸 채 양화대교 북단 인근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한 정군 등은 김양이 숨지자 이군을 불러 시신 처리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행뉴스

울산

초등생 교실서 급우 성폭행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5교시 쉬는 시간에 6학년 남학생 A군 등 2명이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동급생 C양을 학교의 빈 교실로 끌고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이들은 한 시간전인 이날 점심 때 C양을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했으며 3일이 지난 18일 학교에서 또다시 C양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학우들이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제지당했다.

피해 여학생은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뉴스

“미국인 거지” 혐담에 만취 행패

생다발

○동네 주민들이 자신을 헐뜯는 말에 격분한 60대 미국인이 만취해 남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미국인 L(60)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15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건설사무소에 들어가 대나무 막대기로 TV 모니터를 깨뜨리고 사무실에 앉아있던 구모(53)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L씨는 함께 지내는 한국인 후배(56)로부터 “수염을 덩수룩하게 기르고 다니니까 주민들이 ‘미국인 거지가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헐뜯는 사람을 찾다가 엉뚱한 사무실에 들어가 분풀이.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개강 7월 1일

한빛고시학원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남보다 빠른 합격의 기회는 바로 여름방학이다!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

유망직업 합격전략 설명회

일시: 6월 25일(금) 14:30 ~ 18:00

타원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5년연속 호남지역 최다합격자 및 수석합격자 배출

광주지역 수강생 80%이상 석권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